



2015년도 안동권씨 대구종친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

안동권씨 대구종친회 회장(권영하)은 2015년 11월27일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그랜드호텔 디아너스티움에서 종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권상주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방배, 권영하회장의 내빈소개, 공로패수여, 장학금수여(5명)에 이어 회장님의 인사말씀에 회장직을 맡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만 세월동안 큰 대가 없이 지나는 것이 꿈만 같으며 물러나더라도 종친회 발전에 작은 힘이

라도 보태겠다며 후임 회장이 좋은 분으로 추대되어 종친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특히 장학금 제도는 회장님의 사비로 학생들에게 수여하겠다고 하시고 권도혁고문님의 축사, 권태갑고문님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권충감사무국장의 회무결산보고에 이어 권태순감사님의 감사보고후 임원선출에 권순호(좌윤공과37세)고문님이 28대에 이어 30대 회장에 추대되었으며 감사, 부회장, 운영위원은 전원 유임하고 권순호회장은 지나는 경력을

되돌아보고 더 한층 명실상부한 종친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시고 많은 참여와 조언을 부탁하시고 권영진시장님과 권은희국회의원도 참석하시어 종친들의 성원에 힘입어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시고 자주 못되어서 죄송하고 마음은 항상 쪽친여러분과 같이 하겠다고 하였고 2016년 예산심의 기타토의 후 식사를 하시며 화기애애하게 정담을 나누며 총회를 마쳤다

(사무국장 권충감)

충북도 종친회 창립 및 임시총회



▲지난해 12월 1일 명가미술관에서 충북도 종친회 창립 및 임시총회 개최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1시 청주시 소재 「명가 미술관」에서 충북청주시 4개지역(시, 군, 회장, 청장년 회장)등 19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 종친회 창립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혁만 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충북도에 이어 충북도종친회 창립주비(준비)위원장을(발기위원장)인 권태호(현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문 문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충북도 종친회 창립 및 임시총회에 청주시, 군회장, 임원진 및 제천, 진천,

옥천 등에서 참석해 주신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회의에 들어가 「회칙(정관)」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다음 임원선출에 들어가 충북도 회장: 권태호(현 변호사)▲감사: 권후중(제천), 권영배(청주)씨를 선임하고 이외에 임원은 신입회장에 위임했다.

그리고 기타토의에서는 회비는 각 지역별 년 10만원으로 하고 매년 4월중 정기총회전까지 입금기로 했으며 ▲입금계좌(농협: 345-02-051598(권혁만)씨 앞으로 입금

하면 되고 또한 정기·임시총회지역을 순회키로(예정)했으며 또한 국민의례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대하여 권영수(제천)고문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권혁풍(청주)고문이 학교 교육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참석자에게 배포했으며 이어서 신입 임원 권태호 충북도회장이 앞으로 도(道)종친회는 친목을 다지고 연간 몇번의 모임으로 문중발전과 지역 문중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인사가 있었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고문: 권희필(제천), 권영수(제천), 권오홍(진천), 권익만(옥천), 권영주(청주), 권혁풍(청주), 권오술(청주), 권영철(청주), 권영환(음성) ▲충북도 회장: 권태호(현 변호사) ▲부회장: 권오형(제천), 성업(증평), 오섭(진천), 영복(괴산), 혁재(음성), 중영(보은), 영국(옥천), 오협(충주), 광택(청주), 태정(청주), 영재(영동)▲감사: 권후중(제천), 권영배(청주) ▲수석부장: 권기택(청주)▲운영위원: 권창자(제천), 권태연(제천), 권오형(진천), 권영철(진천), 권태우(청주), 권혁용(청주)
- (권혁만 사무국장)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會長: 權奇德)는 2015년 12월 9일 11시 서울 대종원사무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권중덕 협의회 총무가 참석 총원 15명 중 11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식순에 따라 회장인사, 총재축사, 신입회원 소개, 현안토의, 기타토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권기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제인 시조 태사공과 남중공의 춘추항사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협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권정달 총재는 축사를 통해 파종 회장협의회 임시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늘 대종원 운영과 각 문중의 문사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각 파종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하였다.

신입회원 인사에서 신임 권옥형 급사중공파종회장을 소개하고 본 회의에 들어가서 권중덕 협의회 총무는 ① 제사의 목적과 의의, ② 향

사봉행 현황, ③ 현재의 향사현황 분석, ④ 향사일 변경 의견과 목적, ⑤ 향사일자를 변경한 사례, ⑥ 춘추항사 변경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각 파종회장의 의견을 개진 하였다

먼저 권오창 종파종회장은 향사일 문제로 종친들이 분열하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임시총회에서 종전대로 환원하지는 의견에 동의 하였다. 권용주 부정공파종회장은 종전대로 환원이 어려우면 춘향은 종전대로 환시에 불행하고 추향은 10월 9일(공휴일) 정일로 하면 어 따라고 제안하였다. 권도혁 동정공파종회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종친들의 분열을 막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인택 정조공파종회장은 학문이 깊고 현명한 분들은 남의 문중에 절대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았음을 거론하고 자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동조해서 아니고 순수한 문중의 화합을 위하여 종전대로 환원하자고 하였다.

권경석 추밀공파종회장은 대종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결의

사항을 불복만 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라도 총회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꼭 필요하다면 임시총회를 열어 여러 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자고 강조했다.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도 임시총회를 춘향전에 개최하여 화합을 전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권옥형 급사중공파종회장은 처음으로 총회에 참여하여 잘 모르지만 합법적 절차에 의거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권기덕 별장공파종회 부회장과 권중덕 시중공파종회장도 임시총회를 춘향전에 개최하여 향사변경을 재 논의하여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기타토의는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12시 40분 폐회하였다.

회의를 마친 협의회회원들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대종원 직원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종중의 발전과 화합을 다짐하며 정담을 나눴다.

동정

▲최근 권봉도 현대통상 대표이사 대표 총원 부총재가 성균관대 출신 CEO로 임인 성공경영인포럼(회장 한소철)이 주는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영해 대한민국 건국회장은 지난 16일 조선일보와 통일문화연구원 이 주관하는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4기 졸업식에 참석했으며 권회장은 아카데미가 남북한의 이질화된 문화를 통합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한다면 남쪽의 젊은 이들을 위해서도 아카데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를 前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오 후 서울 여 의 도 국회의원 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4회 대한민국 실천대상에서 지역발전부문을 수상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한국중앙연구원 권회연 교수를 초청, 제13차 목요 공부방을 진행했다.

검교공파 서울종친회 송년회

검교공파 서울종친회 (회장 권오문)는 2015.12.2.(수) 18:00 서울 잠실 소재 "산.들.해" 한정식 식당

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문회장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 "포스코 방문" 1

박2일이 가장 큰 의의가 있었고 보람 되었으며, 메르스 전염병 등으로 모임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웠

복야공파 평리공, 문탄공, 종정공 배위 6위분 추향 봉행

지난 10월2일(음) 오후 3시 30분 예천군지보면 신평리 화봉산 송라재에서 복야공파 12세 평리공(휘 척) 13세 문탄공(휘 한공) 15세 종정공(휘 사중)의 배위 등 6위분의 추향제를 후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권재현▲아헌관: 권영익▲종헌관: 권중원▲찬자: 권갑현▲독축: 권동술

(권혁세 기자)

부산종친회 산하 천등회 송년의 밤

부산 천등회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 연산동 소재 옛골도성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송년의 밤을 가졌다.

먼저 권임오 총무의 사회로 시조님에 대한 망배를 올리고 권재혁 회장의 인사로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권길상 전국지역종친회 협의회장의 격려사로 지난 11월 7일 시조님 추향제에 부산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 많은 족친들께서 참석하여 주신 열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다.

특히 대종원 정기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춘·추향제를 강

행하여 1년에 두번 제례를 드리게 됨은 타 성씨의 모범인 안동 권씨 문중으로서서는 타 성씨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불미스러운 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이 있었다.

총무 보고를 끝으로 저녁식사에 들어가 정담을 나누고 다가오는 병신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산회 하였다.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재혁)

권문 단신

▲권오준(65) 포스코 그룹회장과 그룹내 임원들은 다음 달부터 급여의 10-20%를 청년희망펀드에 기부기로 했다. 권회장은 급여의 20%를 다른 임원들은 급여의 10%씩을 각각 기부한다.

▲권영수 LG유플러스 신입 부회장은 지난 1월 오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에게 사내 게시판에 글로 "1등 신화는 언제든 우리에게 그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나게 일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수부회장은 지난 2월 LG 디스플레이, LG화학처럼 세계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택기 前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8일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대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권택기 새누리당 前 국회의원은 "안동에서부터 대한민국정치를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택기 前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택기 前의원은 가장먼저 개혁과 소통, 화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권택기 前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18일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대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권택기 새누리당 前 국회의원은 "안동

현빈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권영훈

- 前 국세청 법인세과장·조사2과장
- 前 삼성세무서장
- 안동권씨 대종원 감사
- 복야공파 34세 경북포항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

현빈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무실 약도
강남역 1번출구 또는 역삼역 3번출구 도보5분
1층 SK텔레콤 건물 내(성곡빌딩)7층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7층(역삼동, 성곡빌딩)
(구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7층)
대표전화 : 02)538-2244 / 팩스 : 02)562-7007